

'05년 7월22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에너지관리과 과장 허 경, 주무관 안근영 (2110-5423)

대기전력 1W 프로그램추진, 연간 1,210억원 절감

- 2010년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을 위한 국가 로드맵 수립 추진
- 2010년 대기전력 1W보급 40% 달성시 연간 1,210억원 절감효과
- 2020년 대기전력 1W보급 80% 달성시 연간 7,480억원 절감효과

□ 국제유가가 50달러를 넘는 고유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이하로 낮추기 위한 계획(Standby Korea 2010)을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키로 함.

* 대기전력(Standby Power) : 기기가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기기의 주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내·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는 전력.

○ 전기흡혈귀(Power Vampire)라 불리는 대기전력은 기기당 평균 3.66W[국가 전체적으로 856MW(화력발전소 1기 발전용량)]를 소비하고있으며, 이를 2010년까지 1W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국가 로드맵 「Standby Korea 2010」을 “대기전력 1W 프로그램 추진위원회” 심의 및 100여 전자업체와의 공청회('05.7.5)를 거쳐 최종 확정함.

「Standby Korea 2010」 기본목표

“201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은 1W 이하로 한다”

· 전자제품 : 소비자 전자기기, 사무기기, 백색가전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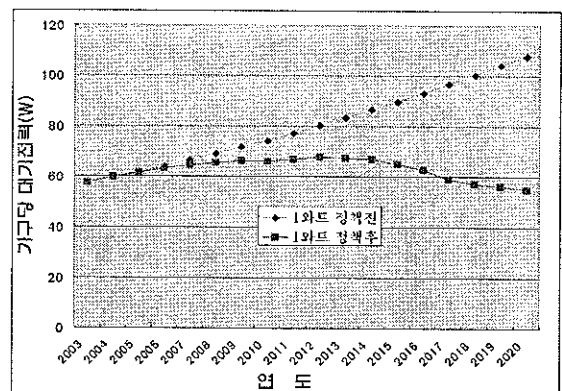
※ 대기전력은 가구당 연간 306kWh(35,000원) 소비하여 우리나라 가정 전력소비량의 11%(국가 소비량의 1.7%) 점유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1,500만가구가 매년 5,000억원 낭비하는 셈. 국내 전자기기는 3억대정도가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기기당 평균 3.66W, 1가구당 57.5W(15.6대) 순시 대기전력으로 소모됨

- 대기전력 1W 정책은 1단계(2005~2007년)로 자발적(Voluntary) 1W 정책을, 2단계(2008~2009년)로 의무적 정책 전환준비 및 일부제품 의무규정 적용을, 3단계(2010년부터)로 의무적(Mandatory) 1W 정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임.

□ 2010년부터는 신규 제품에 대해 의무적 대기전력 1W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 22% 정도인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 보급률을 2010년까지 40%, 2020년까지는 80%로 높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,

- 또한 대기전력관리 대상제품도 모뎀, 비데, DVR, 홈게이트웨이 등의 신규 추가하여 현행 18개 품목에서 30품목(2010년)까지 확대기로 함.

□ 대기전력 1W 정책 효과는 200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, 2012년을 고비로 가구당 대기전력 총량의 증가추세가 감소하며 2020년경에는 기준년도인 2003년보다도 대기전력 총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.



- 이는 가구당 보유기기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함에도 실질적으로 대기전력 발생총량이 같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기기의 대기전력은 초기의 50%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.

구 분		기준연도(2003년)	2010	2020
1가구당 대기전력 소모기기	오프라인기기	15.0	20.0	25.7
	네트워크기기	0.6	1.9	10.0
	계	15.6대	21.9대	35.7대
1W이하 제품 보유비율		22%	40%	80%
1기기당 평균대기전력		3.66W	3.02W	1.54W
1가구당 순시 대기전력		57.5W	66.1W	55.0W

□ 또한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의 달인 오는 11월 서울에서 APEC 및 국제에너지기구(IEA) 후원하에 미국, 유럽연합(EU), 호주, 중국 등 20여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대기전력회의(International Standby Conference)를 개최하여 한국의 대기전력 1W 정책이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성공 모델로 정착할 수 계기로 도약시킬 계획임.

※ 우리나라는 미국,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대기전력 1W 정책 공식 선언 (국무총리, 제26차 에너지절약촉진대회, 2004.11.12)

※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한국과 호주를 IEA의 1-watt Plan에 가장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. 1-watt Plan은 자국에 맞는 1W 정책을 통해 2010년까지 모든 전자제품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낮추자는 국제 에너지기구의 운동.

< 참 고 >

□ 단계별 대기전력 1W 정책 주요내용

1단계(2005~2007년)	자발적(Voluntary) 1W 정책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- ① 에너지절약마크 표시기준에 1W 기준 적용
 -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상제품(소비자전자기기·사무기기)
 - TV, 비디오, 오디오, DVD플레이어, 전자레인지, 컴퓨터, 모니터, 프린터, 복합기 등
- ②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에 1W 기준 적용
 -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제품 (백색가전기기)
 - 전기세탁기, 드럼세탁기, 식기세척기, 선풍기 등
 - 1등급 : 동작시 최고효율 → “동작시 최고효율 + 대기전력 1W 이하”
- ③ 대기전력 1W 이하제품 정부 조달시 최우선구매
- ④ 소비자단체의 대기전력 1W 이하제품 구매운동 지원



2단계(2008~2009년)	의무적 정책 전환준비 및 일부제품 의무규정 적용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① 2010년 의무적 정책 시행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
- ② 직류전원장치에 대한 최저효율기준 적용 (2008년 시행)
 - 최저효율기준(MEPS :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) 적용
 - : 2~3W의 대기전력을 소모하며 현재 1억대 이상 보급되어 있는 직류전원장치에 대해 대기전력 기준($\leq 0.5W$) 및 동작시 효율기준 미준수시 생산·판매금지. 호주 및 美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부터 직류전원장치에 대한 최저효율기준 적용 예정

3단계(2010년부터)	의무적(Mandatory) 1W 정책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- ① 전자제품 대기전력 신고 의무화
- ② 대기전력 기준 미달제품 : 제품명판에 경고표시(경고라벨 또는 경고문구) 의무표시
 - 경고표시제 도입
 - : 대기전력 1W 기준 미준수 제품에 대해 제품명판에 경고라벨 또는 경고문구 의무표시(ex : 담배 경고문구 참조). TV, 셋톱박스, 전자레인지, 컴퓨터, 모니터, 프린터, 복합기 등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상제품으로 시행 검토 호주는 2012년부터 경고라벨(Warning Label) 의무표시 시행 예정.